

캠코, 기업-투자자 매칭 '기업구조혁신센터' 가동

전국 27곳 설치·온라인 본격 서비스 1조원 펀드 중심 中企 구조조정 지원 "자본 시장 주도 혁신 이끌어 갈 것"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가동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채권 금융기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개편하겠다고 한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업구조혁신 펀드는 민·관 은행 중심(모(母)펀드)으로 정부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자본시장(자(子) 펀드)에서 나머지 500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한국성장금융이 모 펀드 운용을 맡고 내부 전문위원회를 통해 자(子) 펀드 위탁 운용사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펀드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고 펀드 운용으로 생산 유발 효과 2조원, 취업유발 효과 1만1000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캠코는 여러 곳에 나눠진 중·중소기업의 채권을 한 곳에 모으는 정보플랫폼을 가동, 자율협약 및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들이 사모대출펀드(PDF) 또는 사모투자펀드(PTF)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구조조정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할 때 여러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들로 인해 구조조정 속도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만들어진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PEF(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최근엔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등 비을 때 우산을 가져다 주는 성공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자본 시장이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마중물 역할을 기업구조 혁신 펀드가 담당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캠코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27개의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두고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개 은행, 캠코, 성장금융과 양해각서를 맺은 '기업구조혁신펀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matching 정보업체 역할을 한다. 왼쪽부터 문창용 캠코 사장,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 한재아 홍보대사.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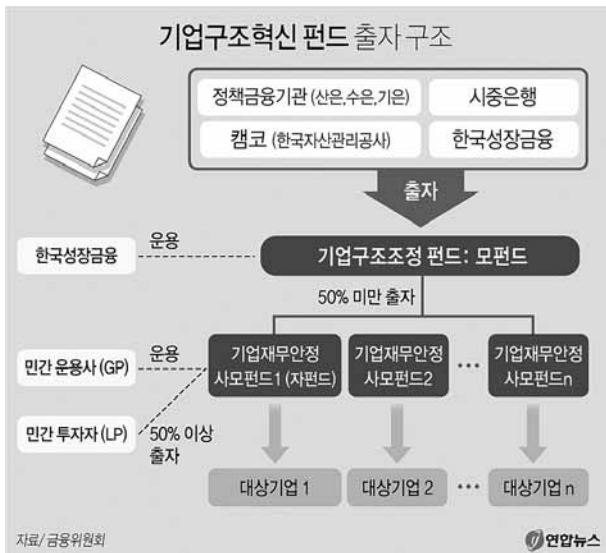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연결한다. 지원센터는 투자자(LP)에게 구조조정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기업에는 적격투자자를 물색해준다.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매칭'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선 자율협약(B등급)·워크아웃(C등급) 기업에 적격 LP와 정부의 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 I'이 만들어진다. 이어 회생법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회생절차 기업(D등급)의 정보를 LP들에 제공하는 '플랫폼 II'도 추진한다.

캠코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중·중견 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런 플랫폼으로 여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중소기업 채권을 사들여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권 유지) 금융'을 제공한다"며 "기업의 부동산 등을 사들여 재입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L.B)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기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

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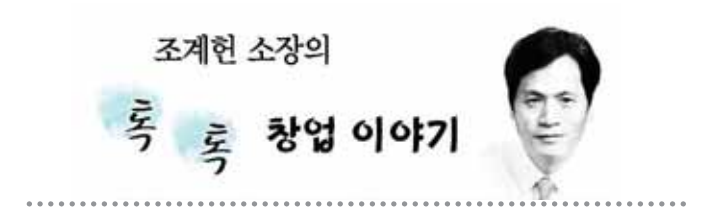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중국계 기업 광주 콘텐츠 중국진출 지원 업무협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지난 20일 열린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활성화 포럼에서 워너블 엔터프라이즈와 광주지역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워너블 엔터프라이즈는 협약에 따라 ▲창업육성 공간지원 ▲유망 스타트업 공동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 및 협력 ▲스타트업 기업의 양국 진출 관련 비즈니스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워너블 엔터프라이즈는 중국 고이텍 그룹의 국내 자회사로 국내 스타트업과 중견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중국 시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지역 프랜차이즈 육성의 필요성


광주·전남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가 대구, 경북의 3분의 1수준이고 전북에 있는 본사 수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광주전남의 프랜차이즈 분야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의 반증인 것이다. 광주·전남북을 다 합쳐도 프랜차이즈 본사 수는 264개로 전국 4268개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중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230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21개, 도소매 13개 순이다. 특히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본사의 수가 10개 업체에 불과하여 전국적인 대형 브랜드들의 부재가 많이 아쉽다.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구수의 분포로 보나 현재 수준에서 광주전남의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중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브랜드들의 숫자도 지금보다 적어도 5배는 많아 된다고 생각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왜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면 지역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돼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브랜드들이 관련 시장을 주도한다면 지역 가맹점에서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자금이 외부의 본사로 흘러나가 우리 지역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자금들을 내부로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프랜차이즈 본사의 성장이다. 우리 지역 본사들이 성장해 타 지역에 가맹점들을 많이 개설하면 그 가맹점들로부터 수백억, 수천억의 식자재비와 제품 및 서비스 공급비용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본사가 성공했을 때 본사 하나만 살피는 단독형 구조가 아닌 해당 본사의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지역에 포진하여 같이 매출을 창출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인프라형 산업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하나가 성장하면 농수산물 생산 농가나 유통업체, 인테리어업체, 간판업체, 주방기기 업체, 주방집기업체, 인쇄업체, 포장재 생산업체, 식품가공업체, 업소용 가구업체, 냉난방업체, 포스업체, 물류업체, 홍보마케팅 업체, 컨설팅 업체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업체가 공생하며 발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의 중심화두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과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의 대표 효자산업들을 발굴해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다른 어지간한 산업군에 견주어도 그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기에 일부 타 지역 지자체들은 프랜차이즈산업을 차세대 지역의 대표산업 중 하나로 육성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관련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워서 신규 프랜차이즈 본사의 발굴과 육성, 기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가맹점 확대에 대한 마케팅 지원 그리고 특히 서울에 광주전남프랜차이즈지원센터를 개설해 지역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활동 서울본부 사무실을 겸하게 하고 거기에서 가맹점 상담과 사업설명회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길 권하고 싶다. 지역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보면 서울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줄 알기에 광주시나 전남도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면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를 토대로 가장 시장규모가 큰 수도권 공략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